

78년 검찰시대 막 내렸다…‘수사·기소 분리’ 출범

광주중수청 증흥동서…초대 청장 ‘현직 검사장’ 임은정
지방·광역공소청 전환 운영…검사·수사관 등 일부 이동

78년간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일부터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광주지방공소청이 각각 업무에 들어간다. 광주지방공소청장은 현 김종우 광주지검장이, 광주광역공소청장은 고경순 광주고검장이 맡는다.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청정 검사장이 임명됐다.

광주중수청은 광주·전북·제주를 관할하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외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조직은 1청장·1차장·3국·10과·4담당관 체제로 구성되며, 수사관과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정원은 240명이다.

청사는 옛 북광주세무서 건물인 북구 증흥동 한경빌딩에 마련됐다. 현재 1~3층을 중심으로 사무공간과 각종 시설 설치가 마무리됐으며, 건물 외벽에는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간판도 내걸렸다.

1층에는 수사심의담당관실과 인권보호

담당관실, 기획공보담당관실,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비롯해 사건과·수사지원과·과학수사지원과·종합민원실·당직상황실 등이 배치된다.

2층에는 청장실과 차장실, 사무국장실, 총무과가 들어서며 3층에는 경제범죄 수사국장실과 반부패수사국장실, 중대범죄수사과, 반부패수사1·2과, 금융범죄수사과, 범죄수익수사과, 마약수사과 등이 자리한다.

피의자 유치장은 광주동부경찰서를 이용한다.

광주중수청은 출범 당일 개청식이나 취임식 등 별도 행사는 열지 않는다. 향후 업무가 안정되면 별도의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기존 광주지검은 광주지방공소청으로, 광주고검은 광주광역공소청으로 각각 전환된다.

공소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갖지 않고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광주지검에서는 체제 전환을 앞두고 직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북구 증흥동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개청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원들의 자리 이동과 사무실 정리 등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검 중회의실(516호)에서는 ‘2026년 하반기 전출 인사’ 행사가 열렸으며, 오전 11시에는 9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중수청 임용직원 퇴임식’이 진행됐다.

광주지검에서는 검사 1~2명과 수사관 약 50명이 중수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결원을 매우기 위해 인 권보호관 등 일부 직책이 사라지고, 순천

·목포 등 일선 지청 인력의 광주지방공소청 이동도 예상된다.

다만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모든 사건이 새 체계로 일괄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검찰이 맡고 있던 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할 사건과 중수청 또는 경찰로 넘길 사건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도 수사권 재편에 대비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 본청이 지난달 28일 마련한 현장 교육에는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수사 부서 관리자 250여명이 참석해 수사 준칙 등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했다.

개정준비단 관계자는 “광주중수청을 비롯해 전국 모든 중수청이 출범 초기에는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전까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주말까지 전남광주 ‘맑음’
낮과 밤 기온 10~15도 안팎

주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설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것으로 전망됐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일부터 4일까지 전남·광주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5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시간은 짧겠지만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6~7일은 구름이 많겠고, 8일부터 11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평년(최저 12~18도, 최고 24~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2~3일은 최저기온이 9~14도, 최고기온이 21~23도로 예상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여수세계섬박람회장 식음시설 위생관리 ‘비상’

박람회조직위, 박람회장 내 영업자·종사자 대상 긴급 점검

최근 여수세계섬박람회장 내 푸드트럭에서 판매된 닭강정의 조리 상태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자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식음시설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일 박람회장 내 식당마켓점에서 식당마켓점과 푸드트럭 등 식음시설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위생교육을 실시

했다. 이번 교육은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위는 이날 교육에서 조리식품의 충분한 가열·조리와 식재료 보관 및 취급,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식음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위생수칙을 집중적으

로 안내했다.

특히 닭고기 등 육류를 조리할 경우 식품이 충분히 익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뒤 판매할 것을 당부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조직위는 식음시설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기존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조리 상태와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관람객에게 이상 증상이나 추가 피

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먹거리 위생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며 “식음시설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위생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과 해양자원을 주제로 열고 있으며,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식당마켓점과 푸드트럭 등 다양한 식음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주노동청 ‘노조활동 방해’ GGM 압수수색

소식지 비난·피케팅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수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조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일 GGM 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노동청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

시 생산구에 있는 GGM 본사에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 대상에는 회사 소식지에 실린 노조 비난 내용과 피케팅 방해, 노조 선전물 훼손, 노조 간부 출입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 같은 사측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제기한 고소·고발과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이번 강제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GGM 노조는 이날 관련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GGM은 입장문을 통해 “이

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GM은 그동안 노사상생발견협정서를 준수하면서 상생협의회의 함께 회사 현안을 논의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노사상생발견협정서를 준수하고,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1일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남구 시간우체국 1층 내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빛·소리·100년의 시간…남구 시간우체국 ‘윤택’

내부 공사 모습 최초 공개…11월 임시 운영
개관 이후 운영 콘텐츠·지속적인 관리 관리

“‘시간우체국’과 ‘살롱 드 사직’을 연계해 사직동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설시 광주 남구 사직동 시간우체국 공사 현장. 아직 마감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건물 안에서는 완공 이후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공정률이 92%를 넘어선 내부에는 목재를 활용한 구조물이 자리 잡았고, 층과 층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개방형 공간도 눈에 띄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살

릴 것으로 기대되는 스테인드글라스는 아직 설치 전이었다.

향후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한 빛이 내부를 채우고 음악과 전시 콘텐츠가 더해지면 현재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2085㎡ 규모로 조성되는 시간우체국은 10월 준공한 뒤 11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부 공간은 ‘해리포터 서점’으로 알려진 포르투갈 포르투의 렐투서점에서 착

안했다. 목재를 중심으로 한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층별 공간이 한눈에 연결되는 개방형 구조를 시간우체국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했다.

남구는 이곳에서 편지를 쓰고 사진과 영상을 남기며,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자신의 기록을 마주하는 경험 자체를 공간의 핵심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간우체국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남긴 뒤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받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사진과 영상 등 디지털 기록도 함께 남길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간우체국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록물을 특정 날짜와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URL을 통해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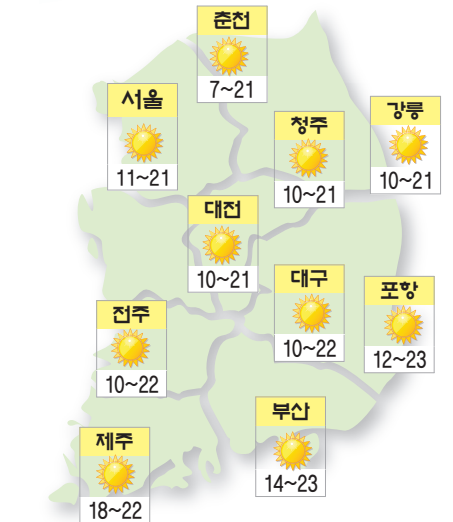
애플리케이션 운영에는 연간 약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남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안에는 편지 보관 공간뿐 아니라 전시관과 음악살롱, DJ 공연 공간 등도 들어선다. 단순히 편지를 쓰고 보내는 곳을 넘어 음악과 전시를 즐기며 잠시 머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남구는 시간우체국을 사직동 일대 기존 문화·관광자원과 연결해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문을 연 문화공간 ‘살롱 드 사직’과의 연계가 그 핵심이다.

방문객이 시간우체국을 찾은 뒤 사직

오늘의 날씨

예보	06:28	날씨	22:02
예보	18:16	날씨	12:32



광주	☀️	12~22
목포	☀️	14~21
여수	☀️	13~23
순천	☀️	12~23
구례	☀️	11~22
광주	☀️	12~22
임도	☀️	14~22
흑산도	☀️	17~20
고흥	☀️	13~23
진도	☀️	13~21

목포	일출(고)	05:31 / 18:26
여수	일출(저)	10:38 / 23:22
여수	일출(고)	12:45 / --:--
여수	일출(저)	05:56 / 18:43

CCTV 영상에 달미

만년필 ○···'80대 고령이라 자전거를 망가뜨릴 만큼 힘을 쓸 수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이 결국 CCTV 영상에 달미를 잡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8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날 8월14일 오전 2시23분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동구 계림동 한 도로 화단 쇠기둥에 잠금장치로 묶인 B씨(60)의 자전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이로 인해 약 53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A씨는 “범행을 저지를 힘이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물리력을 행사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선고일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